

## 충남도, 서해연안 바다목장화사업 388억원 투입

충청남도는 유엔해양법 발효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으로 조업어장 축소 및 연안어장 자원감소 등에 따라 연안 바다에 인공어초, 해조장 등을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이용·관리하는 천연의 바다목장 조성을 위해 태안군의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에 이어 내년부터 2010년까지 보령시와 서천군 해역에도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해양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오는 2010년까지 국비 337억을 포함해 모두 388억원이 투자되는 태안군의 바다목장 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보령시와 서천군에도 바다목장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해양수산부에 1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충남도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을 위해 개소당 50억원을 투자(3~5개년 계획)하여 시설 예정 해역에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 해조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한 바다목장 조성으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보령시는 1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적지선정 및 개발방향 제시 등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바다목장 단기간내 집중개발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추진 성과에 따라 도내 전연안 바다목장화 사업의 확대시행 여부가 달려있다고 밝히고, 바다목장화 사업의 성

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 신재생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는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의 소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열을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2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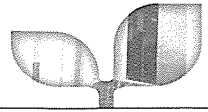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에서는 11톤/일의 증기를 생산하여 인근 산업체에 7톤/일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

환경부에서는 소각 잉여열을 신재생에너지화 하여 금년 9월부터 인근 산업체(대상(주)전분당 공장)에 공급하고 있어 고유가시대에 연료절감에 의한 경제적 효과 창출로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환경오염저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버려졌던 소각 잉여열을 신재생에너지화 함으로써 연간 816만 리터의 연료절감으로 약 3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 창출효과가 있으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연간 약 8,486톤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협약 대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민간소각업체에 대해서도 소각 잉여열의 에너지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번 군산처리장의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소각업체에서 운영중인 소각시설 총 111개소중 시간당 2톤 이상의 소각시설 54개소를 대상으로 소각 잉여열을 열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경제성 등을 조사·분



석하여 소각 잉여열의 에너지화를 촉진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충북, 도심하천 기능의 레저·휴게공간 겸비

청주시의 심장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무심천이 내년 말이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시민들에게 레저·웰빙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지난 2002년부터 총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상당구 지북동 시계에서 문암동 합류부 12km, 폭 150m 구간에 상류지역은 자연생태형 하천, 도심구간은 친수형, 하류지역은 자연생태형과 정화형 공간으로 복원하기 위한 무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70%의 공정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수영교~울량천 합류부 6.8km에 대한 하상주차장의 녹지복원 및 자연정화 시설, 자동보 등을 설치했고, 제2운천교~송천교 1.2km 구간 돌쌓기, 징검어울, 관찰로와 초화류 식재, 수영교~송천교간 사행수로, CCC회관앞 하상주차장 철거, 어도 및 식생호안을 설치했으며, 지난해에는 방서교~흥덕대교 5km 구간 퇴적토 준설, 여울설치 및 수생식물 식재, 수로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금년에 33억원을 투자 용평교 부근, 흥덕대교~제2운천교 구간에 사행수로 및 관찰데크, 관찰로 설치, 운수보 어도설치, 서문대교~청남교간 하상주차장 철거, 퇴적토 준설 등을 할 계획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으로 10월초 착공해 내년 6월 이전 준공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기수립된 무심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생태복원과 친수 수변공간을 지속적으로 추진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자연생태 복원과 도심하천 기능의 레저·휴게공간을 겸비하는 무심천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 전주시, 내년부터 학교숲 조성 추진

전북 전주시는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40억원을 투입,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교 및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숲'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학교숲 조성은 도심의 식재 대상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학교 공한지를 적극 활용해 숲을 조성, 쾌적한 도심 생활공간으로 재창출 하고자 추진된다.

동 사업이 추진되면 천년전주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로 재생되어 활력을 불어넣고 생태계 복원을 함께 도모하는 효과는 물론 도심 열섬 저감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푸르른 도심에서 쾌적하게 쉬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 음식폐기물용기 '깨끗'

대전 대덕구내 음식물폐기물 용기가 청결해진 다.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추가 구입한 음식폐기물 용기 세척차량으로 공동주택내 수거용기 1,200개에 대해 본격적인 세척에 들어갔다.

그간 구는 도로변의 음식폐기물 용기를 세척하고 공동주택내 용기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세척을 실시토록 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세척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공동주택내 음식폐기물 용기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음식폐기물 용기는 공동주택내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깨끗한 세척을 통해 공동주택내 악취제거 및 도시미관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부천시,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부천시는 지난 20일 부수자원생태공원(역곡 하수처리장) 관리동 앞 잔디광장에서 부천시 주요인사 및 12개 지자체 시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서울시건설기획국장, 인근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지난 2003년 12월 부지면적 52,374㎡(15,843평)에 사업비 899억원

을 투입해 조성한 3.39㎢ 구역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시설에 체육시설 등 시민편의시설을 갖춘 생태공원이다.

소사구 역곡배수구역 및 서울시 구로구 향동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역곡천, 목감천 및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된 하수처리를 위해 부천시와 서울시가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됐다.

공원은 하수처리장의 모든 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 속 쉼터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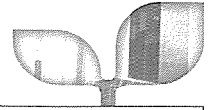
생태공원 지상에는 축구 연습장을 비롯해 풋살 경기장, 농구대 등 체육시설과 역기 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평행봉등 운동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60평의 노인복지회관, 1,160평의 잔디피크닉광장 및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고 생태연못, 자전거 만남의 광장, 피라미드 분수대 등도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원조성은 역곡천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폐수를 차집 처리함으로써 역곡천 수질개선과 시민의 주거환경개선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됐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이면서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포항해경, 바다 정화활동 펼쳐

포항해양경찰서는 제6회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포항구항, 구룡포항 일원에서 바다사랑실천 정화활동(사진)을 펼쳤다.



이날 바다사랑 정화활동은 그동안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대국민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민간시민단체(NGO),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해양·수산 유관기관, 단체와 바다가족 등 300여명이 함께 참여해 폐그물 등 쓰레기 10여톤을 수거, 처리했다.

또한 바다쓰레기 오염 심화지역을 선정해 폐스티로폼, 폐그물, 폐타이어 등 어업활동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과 육상유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정화지역의 쓰레기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혁신사업의 하나로 '해양쓰레기 Zero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바닷가 대청소운동을 펼쳐 해양쓰레기 약 47톤을 수거·처리하는 등 바다사랑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 서울, 손에 흙 묻히는 날, 공원이 웃어요.

서울시녹지사업소에서는 오는 10월말까지 주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공원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워킹할리데이프로그램에 참가할 시민들을 모집한다.

기존의 공원자원봉사활동이 생태나 외국어 등 일정기간의 사전교육을 거친 후에 참여할 수 있

는 프로그램진행자나 외국인안내 등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별다른 자격이나 준비없이도 참가할 수 있다.

자신의 손과 시간을 동네 공원을 가꾸는데 기여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일요일 아침 교회가듯이 아들딸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하러 오는 가족이 생겼으며, 기업의 봉사활동모임이나 학교단체의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변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시범개최된 놀이터 새옷입히기에 참여열기는 공원시설관리와 체험활동을 접목시켜 재미와 보람을 함께 느낄수 있었던 사례로 다양한 봉사활동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지난 16일은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 12명이 여의도공원에서 휴일자원봉사에 나서, 공원은 처음이지만 워킹할리데이프로그램의 취지나 내용에 공감하고 힘든일도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공원과의 인연을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귀중한 휴일 여가시간에 모두의 정원, 공원에서 손에 흙묻히며 즐거운 맘을 흘리고자 한다면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예약창에서 원하는 공원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체참가자는 별도 협의하여 일감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참가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활동실적도 누적된다. ◀